

석유화학제품 운송 “007작전 방불”

울산, 6월17일 경찰 호위 집단수송 작전 ... 전 직원 직접호송 안간힘

화물연대의 파업 5일째로 물품 운송이 중단되면서 울산 석유화학공단과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공장가동을 멈춰야 하는 위기상황을 맞게 되자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제품반출과 원료반입을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전 사원들이 호송작전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6월17일 오전 석유화학기업 20여사가 연계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물품 운송을 위한 <007작전>이 전개됐다.

기업개별 수송을 지원하던 경찰이 단지 전체에 분산돼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운송방해 행위를 저지한 가운데 울산화주물류협의회에 소속된 23개 운송기업이 일제히 석유화학기업의 제품을 실어나르는 집단수송 작전을 펼쳤다.

부산항으로 수출물량을 옮기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SK에너지 합성수지공장은 작전을 통해 컨테이너 등 화물차 25대 분량을 수송했고, CPL(Carprolactam)을 생산하는 카프로도 제품반출은 물론 원료인 황산과 유황 일부를 확보했다.

석유화학공단 입주기업에게 전기와 스팀 등 동력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한주는 스팀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인 석탄을 울산항으로부터 들여오지 못해 애를 태우다 경찰의 호위 속에 6대의 트럭으로 석탄을 일부나마 들여오고 있다.

이와 같은 작전으로 석유화학공단 입주기업의 물류적체를 급한대로 우선 처리했고 6월16일까지 수송률이 제로에 가깝던 울산항에서는 화물 반출입이 상당량 이루어졌다.

타이어코드를 생산하는 효성은 직원들이 직접 호송작전에 뛰어들기도 했다.

제품을 전국의 타이어 생산기업 등에 실어나르기 위해 화물차 30여대에 실은 뒤 각 차량을 수 명의 직원들이 앞뒤에서 고속도로 입구까지 직접 호위하고 있으며, 제품이 도착하는 현지에서도 해당기업 직원들이 마중하듯 나와 호송해 가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호위를 맡은 직원들은 핸드마이크를 들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막으면 “비켜라”고 고함치거나 때로는 몸싸움까지 벌였다.

하지만, 모든 물류가 소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주는 생산하는 소금을 며칠째 전국 수요처에 공급하지 못해 이미 소금을 원료로 하는 일부 기업들이 가동을 중단한 실정이다.

또 태광석유화학 1공장은 생산품인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를 반출하지 못해 야적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청화소다를 생산하는 3공장에서는 원료인 가성소다를 매일 100톤 이상 들여와야 하지만 현재 30여톤씩 밖에 공급받지 못해 당장 가동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는 “원료공급과 제품반출이 제 때 안돼 당장 공장가동이 중단될까 우려해 긴급 수송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화물연대 파업이 초기에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가동차질은 물론 해외 공급선을 잃게 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17>